

'87 PCT 國際出願統計 분석 우리나라 指定件數는 3천51건...14번째

지난해 PCT를 통한 國際出願건수는 모두 9천 6백 10건이며, WIPO사무국은 수리관청으로부터 9천 2백 1건의 國際出願원본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WIPO가 발표한 PCT에 의한 出願 통계에서 밝혀졌다.

PCT의 연도별 國際出願건수는 設立時인 78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6백87건, 79년 2천7백34건, 80년 3천9백58건, 81년 4천3백21건, 82년 4천7백13건, 83년 5천50건, 84년 5천7백33건, 85년 7천3백5건, 86년 8천82건이 각각 出願되었으며, 지난해는 86년보다 19%가 증가한 9천6백10건이 出願되었다.

또 WIPO가 國際出願 원본을 접수받은 9천2백1건중에는 美國이 가장 많은 3천2백18건, 다음은 西獨이 1천1백88건, 日本이 1천47건, 英國이 9백49건, 스웨덴이 6백4건, 프랑스가 5백20건, 오스트리아가 4백28건, 스위스가 2백59건, 핀란드가 1백73건, 이탈리아가 1백71건順으로 出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번째인 12건을 出願하여 出願率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出願時 각국으로부터 指定되어온 國定別 指定건수는 英國을 가장 많이 指定했는데 지난해 한해동안 9천58건을 指定했으며, 다음이 西獨으로 8천9백33건, 프랑스가 7천7백17건, 스웨덴이 7천6백82건, 스위스가 7천5백14건, 이탈리아가 7천3백17건, 오스트리아가 7천2백49건, 日本이 7천2백54건, 북

셈부르크가 6천9백24건順으로 指定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를 指定한 건수는 3천51건으로 14번째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WIPO 사무국에 접수된 國際出願 원본 9천2백1건중 言語別로는 英語가 가장 많은 5천4백99건, 日語가 1천2백건, 佛語, 서반語, 러시아語 順으로 밝혀졌다.

WIPO開發協力常設委員會 盛了 工業所有權 發展 상호 協力方案 논의

第12次 WIPO 開發協力常設委員會가 지난 5월 16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7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발도상국의 工業所有權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이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人的 자원의 개발과 特許情報 및 문헌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이에 관한 심포지엄도 가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特許廳 李升煥 차장은 國際特許研修院이 아·

태지역을 위한 研修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임을 강조하고, 特許업무 電算化지원·發明振興獎勵사업지원 및 特許情報 및 문헌의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人的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研修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훈련교재 등 보조자료의 필요성도 피력하고 개도국간 人的 교류의 활용방안등에 관해서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特許廳 李升煥 차장을 수석대표로, 국제협력과 유관희사무관이 참석했다. <吳>